

바로 보는 국어 모의고사 ‘오답노트’
 고희원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13. ㉠ ~ ㉣ 중 문장 부호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 참, 금시초문이올시다. 여기 온 사람들은 곡식 한 톨 구경한 일이 없는덟쇼.”
 ㉠ “그럴 리가 없어!” / 고희를 치면서 준구는 마음속으로 / ㉡ “이놈들 어디 두고 보아라! 땅 한 치 부쳐 먹게 내버려 두는가!”
 준구의 속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듣기라도 한 것 같이 윤보는 교활하게 웃었다.
 “소인은 참판님 댁 땅 한 뼨도 부치 목지 않는, 목수를 생업으로 살고 있습니다마는 집은 맨 들어 내도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맨들어 내는 재간이야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리께서는 곡식을 고루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데 여기 온 우리 말고 또 몇 집은 수수 알갱이 한 톨 구경 못 했습니다. ㉢ 혹 최 참판 댁 마님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 흘리는 것을 나리께서 보시고, 헤헤헤…… 그거사 객담이고 참말이제, 이제사 눈물 나누마요.” <중략>
 윤보의 독무대다. 그런데 장광설은 이제부터 시작할 모양이다. 그러나 역시 아이는 아이였다. 졸음이 와서 서희는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 “길상아, 어서 해. 어서 하란 말이야.” / 연신 손등으로 눈을 비벼댄다.
 - 박경리, <토지>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②
 [출제영역] 문장부호
 [난이도] 중
 [정답률] 61%
 [해설]
 ㉡은 ‘준구’의 속마음이다. 따라서 “”(큰따옴표)가 아니라 “”(작은따옴표)를 써야 한다.

14.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하나는?

- ① 거적문에 들찌귀
- ② 개구명에 망건 치기
- ③ 벌거벗고 환도 차기
- ④ 사모에 갓끈

[정답] ②
 [출제영역] 속담
 [난이도] 중
 [정답률] 32%
 [해설]
 ‘개구명에 망건 치기’는 남에게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 막고 있다가 막던 그 물건까지 잃는

다는 뜻으로, 되지도 아니할 일을 공연히 욕심만 내어 어리석게 시작하였다가 도리어 손해나 망신을 당함을 이르는 말이다.

나머지는 모두 '제격에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말로 '돼지우리에 주석 자물쇠, 별거벗고 전동 찰까, 중의 벗고 환도 차는 격, 사모에 영자' 등도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다.

16. ㉠과 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그는 너무나 깊은 잠에 ㉠ 빠져서 일어날 줄을 모른다.

- ① 그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 ② 장군은 적의 계략에 빠져 사로잡혔다.
- ③ 자동차 뒷바퀴가 진구렁에 빠지고 말았다.
- ④ 그 아이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밤잠도 잊었다.

[정답] ①

[출제영역] 의미론

[난이도] 중

[정답률] 70%

[해설]

㉠의 '빠지다'는 '잠이나 혼수상태에 들게 되다.'란 의미이다. 이와 의미가 유사한 것은 ①이다. '잠'과 의미상 가장 대치가 가능한 것은 '혼수상태'이다.

② '그럴듯한 말이나 꾀에 속아 넘어가다.'란 의미이다.

③ '물이나 구덩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기거나 잠겨 들어가다.'란 의미이다.

④ '무엇에 정신이 아주 쏠리어 헤어나지 못하다.'란 의미이다.

20. ㉠과 ㉡의 공통적 기능은?

(가) 봄이 왔다 하되 소식을 모르더니
 넷가의 푸른 버들 네 먼저 아는구나.
 ㉠ 어즈버 인간 이별을 또 어찌 하느냐.

- 신희

(나) 열치매
 나토얀 두리
 흰 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새파른 나리여히
 기랑(耆郎)이 즈시 이슈라
 일로 나리사 지벽히
 낭(郎)이 디니다샤온
 무스미 굵흠 좃누아져
 ㉡ 아으 잣스가지 노파
 서리 몬누올 화반(花判)이여

- 충담사, <찬기파랑가>

- ① 시적 상황에 생동감을 부여한다.
- ② 화자의 내적 깨달음을 드러낸다.
- ③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 ④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정답] ④

[출제영역] 시어의 이해

[난이도] 상

[정답률] 55%

[해설]

㉠과 ㉡의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화자의 정서(감정)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감탄사가 생동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 ② 감탄사로 내적 깨달음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제시된 ㉠과 ㉡은 이와 무관하다.
- ③ 감탄사가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